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름	전승원	소속	전자공학부
연수 국가	일본	해외 연수 기관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연수 기간	2019.1.7.(화) ~ 2019.1.26.(토)		

<나의 일본여행기>

1) 첫 날 그리고 도전 생애 두 번째 해외여행이지만 첫 번째의 경우 같이 갔던 형이 해외여행 경험이 많아서 나는 따라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혼자서 김해공항에서부터 일본호텔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출국 일주일 전부터 공항에서 수속 밟는 법부터 시작해서 호텔이 있는 하시모토역까지 찾아가는 방법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으로 전부 조사했고 가는 길을 전부 알아낸 뒤에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월 7일이 왔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짐을 체크 한 뒤 김해공항으로 출발했다. 평소 늦게 일어나는 나는 아침 9시 반에 공항에 도착한 것도 이른 시간이라 생각을 했건만 이미 공항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앞에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처음에는 수속절차 밟는 것도 걱정을 했지만 막상 출국장에 들어가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단하여 한 단계씩 나아가다 보니 수속절차가 순조롭게 끝났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는 아침 일찍 일어난 탓인지 졸려서 조금 눈을 붙이다 보니 금방 나리타공항까지 도착했다.



나리타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도 미리 가는 경로를 알아냈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제2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통해 신주쿠까지 가는 표를 구매했다. 기차에 타고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과는 다른 풍경에 다시 한번 내가 일본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걱정한 것이 무색할 만큼 앞으로는 혼자서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신주쿠에 도착했고 숙소가 있는 하시모토역까지 가기 위해 다시 케이오선으로 환승하러 갔다. 물론 하시모토역으로 가려면 케이오선으로 환승해서 가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니 케이오선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나뉘어 있었고 일본 전철에 익숙하지 않아 하시모토역이 몇 호선인지도 몰랐던 나는 안내판을 보고 찾아보려했다. 그때 누가 봐도 여행객인 내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는지 안내원이 와서 친절하게 “May I help you?”라고 물어봤다. 갑자기 옆에서 영어로 물어보길래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직 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시모토역까지 가고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일본어로 물어봤고 직원분은 친절하게 하시모토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친절한 안내원 덕분에 하시모토역에 무사히 도착했고 호텔에서 첫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2) 수업

학교에서의 첫 시간은 프로그램 참가생들이 교실에 모여 앞으로의 예정과 수업방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앞으로 20일간 다닐 캠퍼스를 구경했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클래스를 나눠 수업이 시작됐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주말 간 어디 놀러갔다 왔니?”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 부담없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실력이지만 일본어로 말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책으로만 수업하는게 아니라 ppt자료, 영화 감상, 유튜브 등을 통해 일본의 팝문화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알려 주었다. 일반적으로 수업이라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업을 듣는 매일 매일이 즐거웠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3) 필드 트립(Field trip)

① 지브리 미술관

정규 수업일정의 하나로 지브리 미술관에 다녀왔다. 지브리 미술관은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한다. ‘지브리’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스튜디오 이름이기도 하다.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영화관에서 처음 본 영화가 이웃집 토토로인 만큼 당시 7살이었던 나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고 아직까지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브리 미술관을 구경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대되었다. 감독의 작업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방도 있었으며 감독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전시물과 건축구조는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내부에는 촬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눈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끝으로 지브리 스튜디오의 단편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었다. 구경하는 내내 감독의 상상 속에 들어간 기분이 들었고 방문할 기회가 된다면 ‘미야가 되자! 함께!’라는 모토처럼 감독의 머릿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어 보았으면 좋겠다.



② 만화 파크

일본의 팝문화를 떠올리면 역시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있겠다. 그중에서도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기초가 되는 것은 만화라 할 수 있겠고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같은 장소가 아닐까 싶다. 우리가 간 만화파크는 한국의 만화방과는 조금 느낌이 달랐고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이었다. 자유롭게 누워서 만화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돼있었고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들은 각자 그리고 싶은 만화책을 가져와 초청된 만화가분에게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는지 먼저 설명을 들은 뒤 각자가 고른 캐릭터와 마음에 드는 대사로 카드를 채웠다. 그리고 나서는 만든 카드를 이용해 한 명의 사회자가 읽은 대사를 통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해당 캐릭터의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을 했다.

내가 이미 보거나 알고 있는 만화책들도 많아서 반가웠고 재밌어 보이는 만화들도 많았다. 일정이 빠듯한 탓에 느긋하게 읽진 못했지만 다음에는 하루종일 만화에 빠져보고 싶다.



4) 자유여행

물론 수업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가끔은 기타활동이 있어서 6시에 끝나기도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에 4일 정도 수업을 하여 주말과 월요일, 금요일과 주말과 같이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3연속 휴일이 있었다. 그에 따라 연휴가 될 때마다 도쿄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여행을 떠났다. 물론 외국인들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한국인들끼리 돈독(?)해져 연휴간은 항상 같이 여행을 다녔다. 롯폰기의 힐즈전망대, 후지산, 하라주쿠의 메이지신궁, 요코하마의 바다, 오다이바의 야경 그 외에도 신주쿠, 시부야 등등 수업이 끝난 평일도 포함하여 매일 매일이 여행이었고 정말 많은 장소 여행했다.

가봤던 모든 곳이 좋았지만 처음 여행하는 사람에게 추천할 장소를 꼽는다면 롯폰기의 힐즈전망대와 후지산은 꼭 가보길 추천한다. 힐즈 전망대의 경우 야경을 보는 것 이외에도 내부에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 감상도 할 수 있고 벽에 글자를 적을 수 있는 체험활동도 있으니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야경을 보기 위해 여러 군데의 전망대를 가봤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스카이트리가 좋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기엔 힐즈 전망대가 가장 좋은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후지산 등산도 하고 싶었지만 1년 중 등산이 가능한 시기가 여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지산이 보이는 산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해 올라갔다. 우리가 간 날은 날씨가 화창해서 후지산이 정말 잘 보였고 눈으로 보는 풍경이 사진 속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정말 멋있었다. 근처에 놀이공원도 있으니 오전에는 후지산을 구경하고 오후엔 놀이기구를 타보는 것도 추천한다.



5) 팀 프로젝트

수업 마지막 날은 일본 팝문화에 대해 팀별로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기로 예정되어있었다. 그에 따라 2주차에 접어들고부터는 팀을 나누고 주제를 선정했고 주말에 모여 발표를 위한 준비를 했다. 우리팀의 이름은 メガネTV로 팀원이 전부 안경을 쓰고 있어 단순히 결정된 팀명이다. 팀원은 카코, 모모, 나 이렇게 3명으로 중국인 2명, 한국인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다. 물론 내가 한국인. 팝문화에 대해 자유주제인 만큼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 매력적인 관광지의 모습을 전달하는 뉴스'라는 테마로 발표를 하게됐다.(프로젝트겸 관광지에 놀러가고 싶은 건 안 비밀.) 그렇게 하라주쿠의 메이지신궁, 스카이트리, 고양이 카페, 카부키초거리 총 4군데의 관광지 및 문화체험을 했고 외국인 입

장에서 느낀 점을 설명해주어야 했기에 우리들이 직접 인터뷰하는 모습을 촬영해 동영상 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뉴스컨셉에 맞춰 ppt를 통해 스튜디오를 재현했으며 우리들도 종이로 만든 넥타이를 메고서 엄중한(?) 분위기 속에 발표를 했다. 첫 번째 순서라 더 긴장이 되기도 했고 뉴스컨셉이라 대본이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조금 더듬거렸으며 아무래도 준비한 것에 비해 아쉬운 발표였다. 그런데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시상식을 하는 순간 1위 팀을 호명하는데 우리 팀명이 불리는 것이었다. 1위로 호명이 되고 처음에는 잘못들은 줄 알았다. 그 다음에는 속으로 '왜? 진짜 우리팀인가?'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다. 준비한 것 보다 아쉬운 발표이기도 했고 뒷번 발표자들이 전부 준비를 많이 해왔으며 발표도 능숙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선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위로 선정돼 부상으로는 샤프 겸 볼펜으로 쓸 수 있는 펜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가끔 말이 잘 안 통해 번역기를 켜놓고 대화하기도 했고 늦잠자서 약속에 늦어버리거나 동영상 편집이나 자막을 넣을 줄 몰라 카코랑 모모에게만 고생을 시킨거 같아 미안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해준 팀원들 정말 고맙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운 추억이다.



6)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OPU(오사카 부립 대학)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OPU 해외단기연수생을 모집하지 않아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 공지사항을 찾아보던 중 TMU(도쿄 메트로폴리탄 대학)단기연수생을 선발한다는 공지를 보고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OPU프로그램이 연구실에 배정되어 일본인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TMU프로그램은 일본어와 문화를 배운다는 목적 아래 좀 더 가벼운 느낌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학 동안 놀러간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원서의 동기도 짧게 썼고 놀러가자는 생각으로 가볍게 지원했다. 하지만 20일간 수업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하며 팀원들과 프로젝트도 하고 정말 꿈같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만약 나처럼 TMU프로그램에 참가할지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한 번 가보는 걸 추천한다!

